

•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 •



▲ 장흥순 협회장

서 줄곧 경제대통령, IT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제16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구도를 혁파하면서 모든 국민으로부터 고른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에 대해 경하드립니다.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그동안 TV토론회장이나 유세장에서

다.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IMF 이후 우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공헌한 벤처기업들이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벤처기업인들은 당선자께서 주창하는 동북아시아 경제허브 구축, 경제 4강 도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노무현 당선자의 제16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노무현 당선자에게 바란다 •



국민은 제16대 대통령으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다. 협회는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더불어 협회가 바라는 점을 제

시하고자 한다.

국민의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벤처기업을 선택해 지속적인 육성책을 펼쳤다. 기술혁신과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갖춘 벤처기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2001년말 생산규모가 GDP기준 3%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 수출과 고용측면에서도 우리 벤처기업들은 침체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경영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제조 벤처들은 대·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구가했다. 또한,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출증가율을 보인 벤처기업들의 약 40%가 수출에 참여해 국가 경쟁력의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벤처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가 한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여전히 유

효하다. 이에 신정부에게 바라는 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신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정책의 기본 틀을 확립하여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추진해온 벤처정책의 객관적인 평가와 명확한 분석을 통해 장기적 침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사점을 마련하고 정책 기반 마련 및 국가 비전제시에 참고로 삼아야 한다.

둘째, 벤처업계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 벤처기업가들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전념하기보다 외적 제약조건과 싸우는 경우가 많아 기업 경영 전문성의 한계에 의한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기업 성장에 있어 1차적인 책임은 기업가에게 있지만, 이들이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환경으로 전문인력·여성·청년 등의 창업활성화, 창업기업가에 대한 경영마인드 교육, 벤처인재개발 및 육성, 코스닥시장 활성화, M&A시장 활성화, 기업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이 있을 것이다.

신정부는 2010년 세계경제 4강 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이 필수적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리더십과 경제정책 마인드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노무현 당선자 벤처관련정책 요지

—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속성장의 견인차 인지 —



▲ 노무현 당선자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선자가 유세과정에서 주장하 벤처관련정책을 요약했다.

1.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

-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

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등 다단계화된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

2.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지원

- 주 5일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부담금 경감 및 세액공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
-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인하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 확대

3.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 '중소기업인력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인력관리 개선사업, 공동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특례,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창업 지원 등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
- 제조업내 국내 기피직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연수생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체류자 및 불법고용주는 엄격하게 단속

4.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 현장맞춤형 기술 재교육을 통해 2007년까지 매년 2만 명씩 10만명의 기술인력을 양성
- 중소기업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현행 15%에서 17%로 대폭 확대
- 기술보험제도 도입 및 기술거래 활성화

5. 중소기업의 자금 및 금융지원체계의 전환

- 중소기업 차입금 중 금융기관의 순수신용대출 비중 확대
- 중소기업 적정금리정책 유지, 수혜기업의 객관적 선정, 과학적인 사후관리 체제 구축

6.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을 위해 현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에 전시·컨벤션센터·환리스 크관리센터를 포함한 '중소기업센터' 건립 지원
-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기반을 지원해 2007년까지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

7. 벤처기업 성장인프라의 지속적 구축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확대, 지방기업 전용펀드 확충, 해외진출지원 강화 등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내실화
- 제도적 정비를 통한 M&A시장 활성화, 보호예수제도 개선 및 퇴출요건 강화 등을 통하여 코스닥(KOSDAQ) 시장을 획기적으로 개선
- 벤처투자 2차시장 조성, 모태펀드(Fund) 조성, 펀드운용기한 확대 등을 통해 벤처 캐피탈이 활성화

8.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소상공인공제제도'를 도입해 소상공인이 부도·폐업, 사고 또는 노령 등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상호부조로 생활안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어음보험 대상에 중소기업 매출채권을 포함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위험을 보완하는 신용보험 제도 도입

9. 대·중소·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 확대

- '기업간 전략적 제휴지원센터'를 설치해 민·관 공동으로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지원
-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상 대·중소·벤처기업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협력모델 구축

10. 건전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중소기업의 보호

- 직권서면 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하도급 업체에 불리한 대금지급 관행 개선
- 법정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 우대조치를 확대